

드론축구 열기, 전국으로 확산되다

전주 드론축구단, '청주 드론의 향연' 초청돼 성결대학교 선수단과 시범경기 치러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가 전국 각지의 잇따른 초청으로 중추도시의 위상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드론축구 분가인 전주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울산, 대전, 안양, 청주에 이르기까지 경기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도시가 늘면서 그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돼 세계적인 드론레저스포츠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주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드론축구단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청주 드론의 향연' 행사에 초청돼 성결대학교 선수단과 시범경기를 치렀다.

이 행사는 청주시, 충북대학교 주관

으로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드론축제로, 드론축구 시범경기 및 드론축구교실, 드론 스피드레이싱 경진대회,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 드론전시체험 및 이벤트 등이 펼쳐졌으며, 부대행사 중 하나로 전주시 드론축구 시범경기를 선보였다.

전주시 드론축구단은 대회기간 동안 시범경기와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회장을 찾은 수많은 청주시민 등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첨단 미래형 장비인 드론과 레저스포츠의 환상적인 결합에 눈을 떴지 못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편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는 그간 전국을 활동 무대로 드론산업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한중 3D

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드론축구는 지난 2월 서울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에서 문체부의 초청으로 시범경기를 펼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또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7 부산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초청돼 부산거리문화예술협회와 친선경기를 치렀으며, '2017 드론페스티벌 in 울산'에서도 드론축구의 진수를 널리 알렸다.

나아가,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2017 로보유니버시티 & K드론' 행사를 통해 드론축구 세계화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드론축구 최초의 전국대회인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를 진행했다.

드론축구단은 앞으로도 고양시 열리

는 '2017대한민국 행정정보대전'에 참가해 드론축구 전시 등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구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에서 전국 드론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드론축구"를 통해 드론산업의 붐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축구는 전주시와 협력기관인 (사)캠텍종합기술원과 함께 드론산업 신성장산업화를 위해 개발한 신개념 ICT스포츠로, 탄소소재로 만든 전용보호기구로 드론을 감싸고 ICT기술을 접목해 첨단 레이저와 LED, 음향제어 등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민 한마음 자전거 행진' 펼쳐

시청→기린대로→전주천→자연생태관 11km 코스

전주시에서는 지난 26일 생활 속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전주시민 한마음 자전거 행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올 들어 4회째 자전거행진이며,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청을 출발해 기린대로와 자연생태관과 은석교, 은석마을 부근 전주천을 거쳐 자연생태관에 도착하는 약 11km 코스로 이뤄졌다.

이번 행진은 기린대로와 함께 전주천 자전거 길을 다 함께 행진하며 전주천 풍경을 감상하고, 천에 발을 담그면서 휴식을 취하는 등 더위를 잊게 만든 자전거 소풍같이었다.

또한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의 참여

만족도와 소감 그리고 앞으로 함께 달려보고 싶은 행진 코스 등 설문지를 실시하고 더 알찬 자전거 행진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민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진행했던 자전거 행진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려보면서 안전한 도로환경의 필요성과 자동차 운전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는 자연을 벗삼아 힐링하는 레이싱"이라며 "매달 실시하는 자전거 행진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생활 속 자전거 타기 시민 행진에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강경환 전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강경환 전 국립무형유산원장(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이 전주시의 명예시민이 됐다.

지난 25일 김승수 시장은 전주가 전통과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무형유산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강경환 전 원장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강경환 원장은 지난 2016년 2월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전주시와 협력해 국립무형유산원을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 서화동 예술촌과 연계하여 무형유산의 보존, 진흥을 통해 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조성에 큰 도움을 줬다.

또한 전주시 무형문화재 조사·기록, 발간 사업 동참, 무형유산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여러 행사에 협력했다. /인재용 기자



지난 25일 김승수 시장은 전주가 전통과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무형유산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강경환 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50대 남성 폭행·현금 갈취 30대 체포

익산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갈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5일 강도 상해 혐의로 A(36)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익산역 근처의 술집에서 피해자 B(59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며 B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모르는 사이였으나 A씨가 B씨에게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함께온 일행을 먼저 보낸 다음 B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력과 절도 등 전과가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덕진경찰서, 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간담회 개최

덕진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및 지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민·경 협력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진경찰서 자율방범대 사무국장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앞으로 실시할 자율방범대의 합동순찰 취지 설명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의 지역 치안 의견 및 근무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협력치안 파트너인 자율방범대와 파트너 십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한 덕진서장은 "바쁜 생업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지대장 및 대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덕진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익산시,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시작

금·토·일 익산역-미륵사지-왕궁유적-보석박물관-익산쌍릉-익산역 7회 순환

익산시에 순환형 시티투어버스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을 달린다.

익산시는 관광도시 원년을 맞아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KTX익산역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익산백제유적지를 운행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지난 25일

개통을 시작으로 매주 금·토·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익산역-미륵사지-왕궁유적(사적 제408호)-보석박물관-익산쌍릉-익산역'을 하루 7회씩 순환한다.

탑승료는 1일 성인 4000원, 학생·경로우대자·군인 2000원이며 단체(20인 이상)는 1인당 1000원 할인된

다. 하루 동안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

특히 개통 축하 기념으로 이달 8월말까지 운영은 무료로 탑승가능하다.

또한 개통당일은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익산역 익산관광안내소와 여행센터에서 익산시 평생학습 동아리 카드페이팅 회원들이 순환형시티투어 출발을 축하하고 9월 22일 개막하는

평생학습축제 홍보를 위해 열쇠고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KTX익산역 열차이용객들이 기차 시간 내에 세계유산 익산백제유적지를 방문하려는 관광객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순환형 시티투어버스가 익산이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 관광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고품격 익산시티투어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신규노선 발굴 등 활성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완산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 펼쳐

완산경찰서는 지난 25일 8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프길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시간 및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홍보활동에서 완산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등 화산초교에서 교통·여청·지역경찰과 합동으로 하프길 어린이 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 횡단보도 보행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걸다)이 담긴 홍보물품 전달, 보행자와 운전자 상대로 스쿨존 지속운행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강황수 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